

# 현지인 포교 못하면 세계화 머나먼 길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으로 대변되는 21세기의 화두 앞에 이미 세계는 생존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7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도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 돼버렸다.

불교밖으로 눈을 돌리면 그 현실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개신교의 경우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선교사 파송 보고에 따르면 169개국 2만 3331명에 달한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세계화시대 세계속의 주력 종교로 남지 못한다면 도태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다행인 점은 서구에서 불교가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서구 불교는 티베트 불교나 일본불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선(禪)불교의 정수를 자랑하는 한국불교는 아직 자리가 넓지 않다. 반대로 생각하면 발전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세계속의 한국사찰 현황을 살펴 나아갈 방향을 진단해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해외 한국사찰 현황

나라명	사찰수	나라명	사찰수	나라명	사찰수	나라명	사찰수
미국	81	인도	3	필리핀	3	헝가리	1
일본	17	인도네시아	3	스위스	1	홍콩	1
중국	10	브라질	3	영국	1	우즈베키스탄	1
캐나다	9	아르헨티나	3	이탈리아	1	대만	1
호주	4	멕시코	2	덴마크	1	네팔	1
뉴질랜드	4	싱가폴	2	프랑스	1	방글라데시	1
독일	3	태국	2	파라과이	1	스리랑카	1

## 전세계 160여개 사찰...교민·현지인 포교 두 토끼 모두 잡아야

### 호주 한인교회 300곳 사찰 4곳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이 최근 내놓은 해외사찰편람 등 각 종단 해외사찰 현황에 따르면 해외 한국사찰은 160여 곳에 달한다. 주로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영미권을 시작으로 독일, 영국 등 유럽과 멕시코, 스리랑카 등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다. 조계종 사찰은 137곳, 태고종 사찰 12곳, 천태종 사찰 2곳, 진각종 심인당 2곳이며 이중 조계종 한마음선원 해외지원은 10곳으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사찰의 현지활동은 크게 교민포교와 현지인포교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간화선을 중심으로 수행문화에 대해 관심이 일고 있는 유럽과 미주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교민포교에 치중하고 있다.

해외사찰들은 교민포교에 있어 한인교회의 기득권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교민사회에서 이미 안정화 단계인 한인교

회의 물질 지원은 현지포교에서 큰 장벽으로 다가온다.

교회 선교가 강한 일부 지역의 경우는 교민사회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개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필리핀 불락사 주지 범관 스님은 "필리핀에서 불교는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 교민포교 비중이 월등히 높다."

### 생활형, 포교전략 수립이 과제

#### 2세대 포교는 해외불교 미래 담보

교민포교에서 한인교회가 120곳인데 비해 한국사찰은 3곳에 불과해 애로점이 많다"고 말했다.

호주 정법사 주지 기후 스님도 "호주 한인교회가 300곳인데 비해 사찰은 4곳에 불과하다"며 "생활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교회로 사람이 몰리

기 때문에 재정문제부터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선사찰들은 한글학교, 요가강좌와 같은 생활형 프로그램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교민포교에 나서고 있다.

정법사의 경우 문화강좌와 함께 한국의 학생들에게 정법사 교민 2세와 호주인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학공부를 할 수 있는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해 교민들의 동참을 이끌고 있다.

기후 스님은 "해외 교포 자녀는 부모들이 한국 정체성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글학교 등을 보낸다. 또 유학생들은 어학 공부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첫 해외특별교구인 미국 동부 특별교구(교구장 휘광)도 교민학생들의 방학에 맞춰 7월 3일 '제1회 청소년 불교문화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동부교구장 휘광 스님은 "교민들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 불교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특별교구와 일선 사찰의 개별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등을 상시체계로 갖추고 불자교민 관리에 종단 차원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수행 or 기도, 특성화 전략요청

간화선 열풍으로 대변되는 미주·유럽 지역의 경우 수행에 대한 관심으로 현지인 포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찰은 공통적으로 전문성을 지닌 인력 부족의 목소리가 높다.

### 현지인들 간화선 수행에 큰 관심

#### 언어소통, 전문시스템 구축 과제

뉴욕 원적사 주지 성오 스님은 "미국인들의 간화선을 비롯한 수행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한국사찰은 기도처와 수행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분야별로 특성화에 나서야 한다. 수행의 경우 스님들부터 선수행에 대해 정통하고 이를 언어문제가 없이 현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전문성 부재는 그동안 한국 내에서의 해외포교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소장 도널드 스웨러 교수는 "예석하게도 한국불교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없다"면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동안 구산, 송산 스님 등 소위 스타 스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해외사찰은 세계인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패는 일선 스님 개개인에 달려있는 것이 현재 한국불교 세계화의 현실이다.

이웃국가와 타종교를 돌아보면 대만과 일본의 경우 어려서부터 현장실습을 통해 해외포교인력을 준비하는 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내 원불교의 경우도 14개국 45개 교당의 100여명 교무들을 선교육부 인가를 받은 필라델피아의 대학원대학에서 현지교육을 통해 파견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2127명),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

도)순복음 1350명 등 교단별로 1~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한국대학생 성경읽기선교회(92개국/722명), 인터콥선교회(26개국 677명) 등 파송 선교단체도 전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조계종은 2011년 조계종 국제불교교회를 개원하고 해외포교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또 5월 11일에는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조계종 출가 외국인 스님을 위한 첫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해외 사찰을 지원하는 조직체계부터 인력관리·신도확보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전략 수립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로자나국제선원 자우 스님은 "그동안 해외포교는 몇몇 원력 있는 스님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스님들의 일선 상 변화로 포교가 한 순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해외 사찰과 종단 간의 유대 강화, 해외사찰 활성화를 위한 승가인력 양성 및 파견,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 해외전략과 활발한 활동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

젊은 불교, 밝은 대학  
**동국대학교**가  
세상을 밝게 합니다

부처님의 학교 동국대학교  
젊은 부처님의 미소는 언제나 향기롭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웃을 함께 사랑하는  
우리나라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세상의 중심  
금강대학교  
GUMGANG UNIVERSITY

개교 10주년  
다음 100년  
10th ANNIVERSARY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세상의 중심, 금강대학교 개교 10주년  
금강대학교가 다음 100년을 열어갑니다

奉祝 불기 2556년

- 정병도 총장 외 교직원 일동 -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번지 TEL 041)731-3114 www.ggu.ac.kr